

OCN 드라마 ‘플레이어’를 끝내고…

송승헌



송승헌이 달라졌다. 한때 연기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다 30대 후반부터 연기에 대한 자세와 생각이 달라지면서 욕심까지 생겼다고 했다.

사진제공 | 더좋은 이엔터

“놀면서 촬영했는데…‘뻔질이’ 연기 잘했대요”

연기자 송승헌(42)은 1995년 아르바이트 삼아 한 의류 브랜드 카탈로그 모델로 나선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전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는 “갑작스럽게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대중의 뜨거운 반응이 낯설기만 했다. 몰래카메라로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기분은 30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최고의 톱스타로 활약하는 송승헌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어느 누가 예상했을까.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는 지금 서 있는 이 ‘세상’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실감하고 있다.

“30대 중반까지 연기에 큰 흥미가 없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작해 연기는 발발이 수단으로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내 길이 아니라고 여겼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의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제 연기를 보고 행복을 느꼈다고 하더라. 제 자신이 창피하고 쑥스러웠다.”

연기력을 지적하는 댓글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 아니다”며 “신경 쓰이고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더 무뎠해진 것 같다. 성격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다.

데뷔 15년을 맞은 스타의 솔직한 고백이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 “30대 후반부터 연기를 대하는 자세가 변했다”는 그의 말은 대중으로 하여금 이전까지 송승헌의 연기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제 직업이 소중하다는 걸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미소 짓는다.

송승헌은 2014년 영화 ‘인간중독’이 연기 인생에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했다. 이후 작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난해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블랙’에 이어 최근 종영한 ‘플레이어’에 도전했다. 20대까지만 해도 이미지를 떠나 이왕이면 “멋진” 캐릭터를 선호했던 그가 ‘플레이어’에서는 사기꾼으로 분해 능청스럽고 뻔질거리는 모습으로 시청자와 만났다.

“힘 빼고 연기하라”는 의미에 이변에 알았다. 대중 놀면서 촬영한 것 같은데 합쳐서 했을 때보다 평가가 좋았다. 신기하더라. ‘송승헌 다시 봤다, 새롭다’는 반응은

“새롭다” 팬들 반응에 내가 놀라 ‘단한 이미지’ 벗어나게 돼 다행
나도 술 마시고 때론 욕도 하지요
꿈? 멋지게 나이 드는 배우 될래요



▶송승헌

충격이기까지 했다. 15년 만에 복귀한 것도 아닌데, 하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공개해야겠다.”

송승헌은 자신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이렇게 ‘단한 있었다’며 새삼 놀라워한다. 오해를 풀고자 한다. “저도 보통의 남자들처럼 친구들 만나 술 마시며 웃고 떠들고 농담하며 때론 욕도 한다”며 웃는다.

하지만 스타들이 이미지 변신을 피할 때 주로 선택하는 예능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는 망설인다. ‘절친’ 소지섭이 올해 출연한 tvN ‘숲 속의 작은 집’을 언급하며 “지침이 모습을 보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웃음을 터뜨린다.

평소 그는 운동하고, 친구 만나 술 마시고, 집에서 혼자 영화 보며 시간을 보낸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다”면서 “나이를 먹으니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며 외국어와 기타 배우기를 계획으로 내세운다.

그는 자신을 스타덤에 오르게 한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1996)의 동료들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뭉치고 싶다고 말했다

다. 10년이나 지난 시절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그는 “(신)동엽이 형, 지섭이와 술 마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케줄 맞춰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저희는 물론 시청자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송승헌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난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이며, 미래를 상상하는 기대감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처럼” 연기에 대한 욕심이 커진 것처럼, 그래서 작은 꿈을 꾸다면 “멋지게 나이 드는 배우”이다.

“앞으로도 멜로나 액션 장르를 소화하고 싶다. ‘저 배우는 나이가 드니 더 멋있네’라는 얘기를 대중으로부터 듣는 게 소망이다. 지금 장르물의 매력에 빠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우는 연기가 ‘닭살’ 돋으면 어찌나 하는 순수함이 없어졌을까 걱정이 다. 하하!”

그러면서 그는 “연기하는 재미? 저 스스로 변화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기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트와이스도 일본 극우세력 공격 받아

‘이수역’ 性 혐오 갈등 힙합계로 번져

팬들 요청에 ‘마마무 콘서트’ 연기

송해 이름 건 코미디 박물관 건립한다

개그맨 커플 홍윤화·김민기 결혼

방탄소년단에 이어 걸그룹 트와이스도 일본 극우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일본 핫카이드 현의원이자 자민당 소속 오노데라 마사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원자폭탄 티셔츠를 입은 BTS가 NHK ‘홍백가합전’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서 트와이스 다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젝트 ‘마리몬드(Marymond)’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오노데라 마사루 의원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티셔츠 매출은 부적절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 위안부 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면서 트와이스의 NHK 연발 프로그램 ‘홍백가합전’ 출연을 문제 삼았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이 빚어낸 성 혐오와 갈등이 힙합음악계로 번지고 있다. 아직 사건의 완전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래퍼 산이가 노래 ‘페미니스트’로 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제리케이가 ‘노 유 아 낫(NO YOU ARE NOT)’으로 이를 비난했다. 산이는 다시 ‘6.9 cm’이라는 랩으로 맞받아쳤고, 솔릭은 ‘이퀄리스트’라는 곡으로 산이를 비판했다.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단 힙합가수와 래퍼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선이 나온다.

걸그룹 마마무가 팬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콘서트를 연기했다. 앞서 팬들은 당초 12월15~16일 콘서트를 개최하려던 마마무의 계획에 제동을 걸며 ‘콘서트 보이콧’에 나섰다. 팬들은 “과도한 스케줄로 아티스트의 부상 악화와 컨디션 저하가 염려된다”며 마마무 소속사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들은 마마무가 “올해 1월 디지털 싱글 ‘칠해줘’를 시작으로 두 번의 미니앨범 컴백, 7회의 콘서트를 소화했다”며 “일본 데뷔, 70회 이상 지방 행사 및 해외 공연 등으로 무리한 스케줄을 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사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공지 등도 문제 삼았다.

원로 코미디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송해의 이름을 내건 코미디 박물관이 건립된다. 대구 달성군은 최근 개그맨 엄용수를 비롯해 대중문화계, 학계, 군의원, 언론계 인사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송해 선생 코미디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건립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박물관 건립에 나섰다. 송해와 김문오 달성군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건립추진위는 송해가 60여년 동안 활동해온 기록을 한 데 모으는 박물관을 2024년까지 세우기로 했다. 송해는 이를 위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할 예정이다. 앞서 달성군은 2016년 옥포면 옥연저수지 일대 4만7300㎡ 부지에 송해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개그맨 커플 홍윤화·김민기가 17일 결혼했다. 2010년 이후 8년 동안 사랑을 쌓아온 이들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날 신랑 김민기는 홍윤화를 위해 특별한 노래를 선물해 화제다. 김민기는 ‘우리 결혼해요’라는 음원을 통해 홍윤화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했다. 김민기는 이를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식에 앞서 홍윤화는 다이어트와 관련해 “(소속사)대표님이 1kg 뺄 때마다 10만원씩 축의금을 주신다고 했다. 30kg을 뺐다. 축의금 300만원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